

“윤석열 대통령 즉시 하야해야” 신진작가발굴 기획전 열린다

진안군의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성명서 발표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욱)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창욱 의장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강행된 위헌적 행위”라며,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명분은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진안군의회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진안군의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하야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진안군의회 7명의 의원들은 지난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국회에서 열린 비상사국선언대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의회, ‘계엄 사태 따른 결의안’ 채택 · 의결

장수군의회(의장 최한주)는 5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을 채택 ·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계엄 사태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장수군민과 함께 아래와 같이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장수군의회 의원 일동은 결의안을 통해 △헌법과 법률 수호의 사명을 저버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하야 할 것 △국회와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하게 공개 할 것 △비상



장수군의회는 5일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계엄 사태에 따른 장수군의회 결의안”을 채택 · 의결했다.

계엄에 가담하여 헌정 질서 파괴에 동조한 이들을 밝혀내고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제1회 장수군수배 전국 승마대회 개최

장수군은 ‘제1회 장수군수배 전국승마대회’가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천천면에 위치한 장수국제승마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전북승마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근)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3일간 마장미술 · 장애물 2개 종목, 총 17개의 경기가 진행되며 초등부터 중등, 고등, 대학, 일반부까지 다양한 연령과 수준의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처음 치러지는 장수군수배 전국승마대회로 130명의 선수와 105두의 마말이 출전할 예정이며

우승 타이틀을 차지할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국제승마장 개장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군수배 승마대회인 만큼 승마인과 지역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장수군이 승마산업 선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승마산업의 대중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장수군은 내륙 최대 규모의 실내마장을 운영해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



고 다양한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곳에서 개최되는 ‘장수군수배 전국승마대회’가 대표적인 승마대회로 자리 잡아 장수군이 승마산업의 중심지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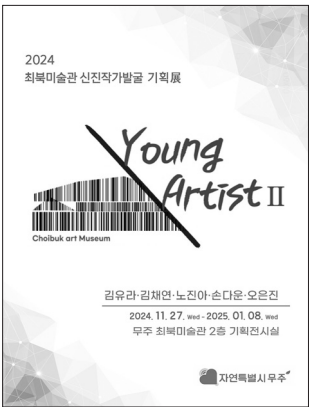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 최북미술관서 내년 1월 8일까지 5인 작가 작품 전시

무주군은 2024년 신진작가발굴 ‘Young Artist II’ 기획전(展)이 11월 27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의 발전과 다양성을 추구하고 젊고 유망한 지역 작가를 발굴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김유라, 김재연, 노진아, 손다운, 오은진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신진작가 5인이 그려낸 평민회화와 설치작품 29점과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자유로운 주제를 바탕으로 신선하고 창의적인 시각을 젊은 열정으로 표현해낸 예술가들의 작품세계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유라 작가는 5점의 작품 중 ‘시선’, ‘시선가두기’가 대표작품이다. 사마귀를 주제로 11등분하여 일렬로 나열한 조각들을 칸트의 철학적 개념으로 표현적인 해석을 넣어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수많은 경험들을 호랑이라는 주제로 표현시켰다는 김재연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 ‘19980928’, ‘20020901’ 등 11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누르고 누르기’, ‘가변설치 작품’ 등 3점의 작품을 내용은 노진아 작가는 “과도하게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다스려야 한다”며 “이번 작품들은 이에 대한 인간의 편안함을 위해 끊임없이 생산되고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인간의 이기심을 상징하였다”고 말했다.

‘몽중몽’ 시리즈와 ‘해책’ 시리즈 등 7점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는 손다운

작가는 혼돈 속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의식들의 과정은 자신 스스로 의식의 근원을 찾는 영역의 확대이자 자아 의식 탐구 과정의 기록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오은진 작가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집단주의 현상과 그에 따른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예술적으로 풀어내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대표 작품 ‘침묵’은 눈이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한 무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한 방향을 바라보는 모습을 하고 있다. 화폭에 먹과 묵탄으로 표현된 무채색 색감은 암울한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묵탄을 문지르고 의도적으로 번지게 하는 표현으로 현대인의 불안 심리를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한편, 신진작가발굴전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전시는 무료이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식품 시험 · 검사기관 재지정

(재)진안홍삼연구소(현동운 소장)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 시험 · 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국가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아 2028년 12월까지 4년간 식품검사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식품 시험 · 검사기관이란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가공식품 등이 기준 규격에 적합한지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곳이다.

이번 재지정 평가는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이 개정(2022.7.1. 시행)된 후 시행된 평가로 강화된 시험 검사기관 운영 및 시설 기준과 연구자의 시험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만 검사기관으로써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의

의가 크다.

(재)진안홍삼연구소는 2012년도에 식품시험검사기관으로 처음 지정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식품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기업의 품질규격 및 품질관리, 성분분석 및 위해 물질분석을 통해 지역 식품 산업체들이 개발한 제품의 위생관리를 통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왔다.

현동운 소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우리 연구소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잔류농약 분야에서 우수한 시험능력을 갖춘 공인 시험 · 검사기관으로 임증이 됐다”며 “앞으로 연구소는 진안군수품질인증제품 및 진안군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한층 더 높여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 통

공송관 국립공원공단 탐방 안전이사, 현장 점검 나서

국립공원공단 공송관 탐방 · 안전이사는 지난 4일 덕유산국립공원을 방문하여 탐방객 안전관리 현황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덕유산 정상인 함적봉 부근에 평균 30cm의 많은 양의 눈이 쌓인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 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 공송관 이사는 함적봉 부근과 설천봉~함적봉 구간 상습 결빙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집중점검 하였으며,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의 제설제와 제설 장비 등 겨울철 재난 관리 자원 확보 현황도 살폈다.

공송관 국립공원공단 탐방 · 안전이사는 “겨울철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관리와 철저한 안전 점검을 통해 재난과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 안전관리 추진

무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약 3개월간 산제적인 화재안전관리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도내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총 1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7명이 부상을 입고 약 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무주의 및 실화로 인한 화재가 125건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무주군 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 29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관리 활동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자율점검표 활용 화목보일러 주변 가연물 등 위험 요인 사전 제거 △화목보일러 안전시설(간이 스프링클러 등) 작동 여부 확인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 수칙 안내 △화목보일러 화재예방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등이 포함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